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EVEN DAYS

가제 : 남은 시간,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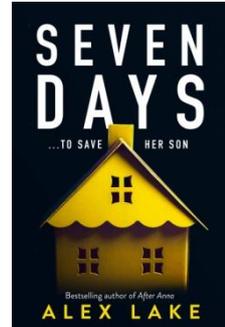
저자 : Alex Lake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엄청난 긴장감이 가득한 중독적인 이야기, 범죄 스릴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 「더 북 리뷰 카페」

스물 일곱 살의 매기는 곧 다가올 아들 맥스의 세 번째 생일을 위해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맥스는 매기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지만 그녀에게 아들의 세 번째 생일이란 곧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매기가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7일뿐이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생활은 12년 전, 매기가 겨우 열 다섯이었던 그 무렵에 시작 되었다. 200년, 매기 쿠퍼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단란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십대 소녀였고 그녀의 유일한 고민이란 남자 친구와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와 같은 사소한 것들 뿐이었다. 남자친구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매기는 혼자서는 그 해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고 마을 건너편에 살고 있는 사촌 앤에게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매기는 가는 길에 남들 몰래 담배도 필 겸, 굳이 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아빠의 제안을 거절하고 사촌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떠난 매기는 결국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매기의 부모들은 매기가 나중에 핸드폰을 살 명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아무 연락도 없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기는 그날 이후 여러 날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매기의 친구들은 물론이고 그날 매기가 만나기로 했던 사촌 앤과 남자친구 역시 매기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생각 보다 꽤 심각한 일임을 알아챘다. 경찰과 매기의 지인들은 매기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온 사방을 뒤졌지만 매기의 실종과 관련된 그 어떤 단서도 남아 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매기의 부모들 역시 매기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매기는 예정대로 사촌 앤에게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오십 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매기의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친구 어머니 댁에 가던 중 길을 잃었다며 매기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 낯선 운전자는 매기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매기가 친절히 다시 설명해주기 위해 차 가까이 다가가자 순식간에 매기를 납치해 자기 차에 태워버렸다. 몇 시간 후, 매기는 숙취와 비슷한 불쾌한 느낌 속에서 눈을 떴다. 주변에는 진정제와 매트리스, 두 개의 양동이와 놓여 있었다. 매기는 곧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창문 하나 없는 작고 어두컴컴한 지하실이라는 것과 자신이 그 운전자에게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기를 납치한 남자는 아침 저녁으로 매기에게 식사를 갖다 주었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파란 가운만 입고 그녀를 찾아 올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그가 매기를 강간하는 날이었다. 매기의 바람과 달리 이 끔찍한 날들은 몇 주, 몇 달로 이어졌고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매기는 이것이 이전 그녀의 새로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매기가 어느 날 그 남자에게 자신을 왜 납치했는지 묻자 그 남자는 매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데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매기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대체 그가 무엇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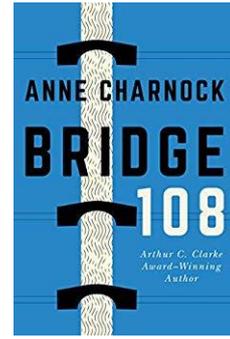
그 후로 12년 동안 매기는 햇빛 한 번 쬐지 못하고 지하실에서 세 명의 아들을 출산했다. 첫째가 셉, 둘째가 레오,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맥스였다. 그 남자는 셉과 레오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은 날 가차없이 매기의 품에서 빼앗아 가버렸다. 매기는 셉과 레오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맥스만큼은 결단코 지켜내기로 다짐했다. 매기는 아들 맥스에게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며 지하 밖의 세상을 함께 보자고 맹세했다.

한편 매기의 실종 사건을 알고 있는 수사관 제인 윈은 유력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었다. 그는 '콜린 베스트'라는 남자로 매기의 실종사건에 대해 수사관인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과거에 그를 이미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주어야만 했다. 게다가 이제는 또 한번 그에게 접근했다가는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제인은 결국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콜린 베스트 역시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듯했다. 매기는 자신과 아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될까? 제인과 콜린 사이에서 벌어지는 두뇌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총총한 줄거리와 반전이 인상적인 심리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알렉스 레이크 (Alex Lake)의 첫 작품인 『After Anna』는 2012년 아마존 선정 10대 데뷔작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의 최근 작품인 『Killing Kate』, 『The Last Night』 등은 선데이 타임즈와 USA 투데이의 베스트셀러였다.

제목 : BRIDGE 108
가제 : 108번 다리
저자 : Anne Charnock
출판사: 47North
발행일: 2020년 2월 18일
분량 : 204 페이지
장르 : SF소설



***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 기후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거친 운명에 맞서는 한 소년의 이야기**

21 세기 후반, 지구 온난화로 유럽 남부에서는 끊임없는 가뭄과 산불이 계속되었고 열두 살 소년 칼럼은 피난길에 어머니와 헤어져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칼럼은 곧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고 결국 공장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칼럼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했다.

칼럼이 일하고 있는 곳은 영국 맨체스터 한 외곽, 한 아파트 옥상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다. 칼럼이 여기서 하는 일은 헌 옷을 다시 수선해서 최신 스타일에 맞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공장은 ‘마 렉시’라고 불리는 서른 초반의 한 여자와 ‘벤’이라는 남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었는데 이곳에서는 칼럼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있었다. 벤은 이 곳에서 마 렉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고된 일에 더해 더럽고 냄새나는 데다 간간하기까지 한 벤 아저씨의 비위를 맞추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도 잃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다. 스페인을 떠나올 때만해도 칼럼은 엄마와 함께였다. 칼럼의 엄마는 먼저 영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후 자신과 칼럼을 데리러 오겠다는 남편이 아무런 소식도 보내지 않자 칼럼을 데리고 직접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칼럼을 데리고 선진적인 재활용 정책과 어업 양식, 비가 많이 오는 기후 덕분에 여전히 건재한 영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칼럼이 특별한 백신을 맞으려면 반드시 영국에 있는 수용소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시스템이 잘 된 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먼저 그 특별한 백신을 수용소 내 아이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었다. 그 특별한 백신이란 아이들이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백신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칼럼의 엄마는 피난 캠프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고 칼럼은 이곳까지 혼자 오게 되었다.

칼럼이 프랑스 북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스카이 라크’라고 불리는 한 여자를 만났다. 칼럼은 그녀에게 자신은 지금 영국에 있는 수용소에 가고 있으며 그곳에 도착하면 엄마의 말대로 꼭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칼럼에게 그 수용소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본성을 잃어버리고 어촌이나 더러운 곳에서 험한 일을 하며 수십 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카이 라크는 칼렘에게 자기가 타고 온 차에 딱 한자리가 남아있으니 난민 출신 아이들 중 특별히 칼렘만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칼렘은 스카이 라크의 제안을 바로 수락해버렸고 결국 그녀의 차에 타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차엔 그녀가 어디선가 데려온 여러 다른 아이들이 이미 타고 있었다. 스카이 라크는 해안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두 한 명씩 데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낯선 아이들과 트럭을 타고 보낸 힘든 시간의 끝에서 칼렘은 마침내 마 렉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홀로 길에서 떨어 굶주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곳에 도착한 첫 날, 마 렉시는 칼렘이 삼 주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꼭 자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살뜰히 챙겨주었다. 일을 시작한 후, 비록 매일 고된 하루를 보내야 하긴 했지만 칼렘은 자신의 급여를 차곡차곡 저금했고 칼렘이 열다섯이 되면 모은 돈을 모두 주겠다고 한 약속한 마 렉시의 말 덕분에 힘든 생활도 즐겁게 버틸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이 공장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마 렉시의 명령에 따라 다른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칼렘은 그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칼렘이 살고 있는 이곳은 일종의 소수집단 거주지 같은 곳이었었는데 반은 슬럼이고 반은 평범한 도시 외곽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정부가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겠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는 일에 반대하다 도망 나왔거나 혹은 칩을 심을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이들이었다. 한 마디로 이곳 사람들은 정부가 아무 쓸모 없는 사람들과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었다. 칼렘은 그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다. 원래 엄마의 계획대로라면 칼렘 역시 열여덟이 되는 해에 칩을 이식 받아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었지만 영국 법률상, 부모 없는 고아는 그 칩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칼렘은 이 곳 생활이 마음에 들었고 언젠가 자신도 마 렉시처럼 관리인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만 이 곳에서 사는 대부분의 어른들을 보면 영원히 이곳에서만 머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마 렉시는 열심히 일하는 데다가 자기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칼렘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었다. 마 렉시는 사실 뇌에 칩을 인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여동생이 공공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칩 이식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마 렉시는 지금 하고 있는 재활용 옷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칼렘 같은 아이의 희생이 필요했다. 하지만 영리한 칼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떤 어른도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아이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탈출한다. 칼렘은 마침내 어머니 아버지와 재회하게 될까? 진정한 집을 찾을 수 있게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담은 SF 소설이자 한 아이의 성장담이다.

<저자 소개>

앤 차노크 (Anne Charnock)는 2018 Arthur C. Clarke Award 수상작인 『Dreams Before the Time of Time』의 저자이다. 데뷔작 『A Calculated Life』는 Philip K. Dick Award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으며 『The Enclave』는 영국 공상 과학 소설 협회 단편 소설 상을 수상했다.

제목 : HOMELAND ELEGIES
가제 : 아버지의 아메리칸 드림
저자 : Ayad Akhtar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20년 9월 8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 “무슬림 이민자들과 그 후세대 아이들의 삶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생생한 서사가 돋보이는 이야기.”- 베스트셀러 『The Friend』의 저자 시그리드 누네즈
- * “ 인종과 종교, 정치적인 망상과 광기, 미국의 현실에 대한 황홀한 이야기.”-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 다니엘 켈만

이 소설은 분열되고 있는 미국의 정체성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미국 내 무슬림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저자 아야드 아크타르는 역사적 사실과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에 허구를 더하여 9·11 이후 미국에서 벌어진 분열 사태와 그 속에서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부유하던 이민자들의 삶을 그렸다.

어린 시절 아야드가 바라본 미국은 그가 밤마다 어머니와 즐겨 보던 시트콤 속 세계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세상이었다. 아야드의 아버지는 이미 1964년 결혼 후 파키스탄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부터 미국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누구든 마음 먹는 대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야드를 데리고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 박물관, 케네디의 생가 같은 역사적 장소에 찾아갔다. 하지만 아야드의 어머니의 생각은 아버지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미국인들의 물질주의와 크리스마스 풍습을 경멸했고 미국 내 모든 무슬림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9·11 이전부터 이미 미국은 영영 자신의 고향이 될 수 없는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2016년, 세상을 TV 쇼처럼 생각하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민자들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90년대 초, 아야드의 아버지는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당시 사십 대 중반에 들어선 또래였고 각자가 처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시기였다. 그 무렵 트럼프는 카지노 운영 때문에 빌렸던 대출금과 어마어마한 부채로 사업상 난항을 겪고 있던 와중에 초호화 호텔 사업과 제트기 항공 사업까지 벌여 놓은 상황이었다. 그 해 여름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혼 후 트럼프 타워의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어딜 가든 늘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배달된 햄버거와 감자튀김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그의 정신적 상태화에 대해 온갖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아야드의 아버지 역시 그 당시 트럼프처럼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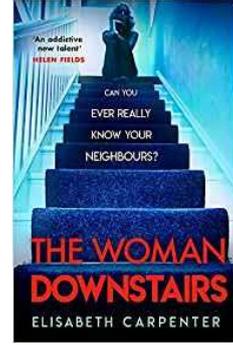
1979년부터 1981년까지 계속되었던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초기, 그의 아버지는 대형 병원을 떠나 혼자 심장전문의 개인병원을 열었다. 아버지는 돈이 조금씩 모이자 투자 사업에 눈을 돌렸고 주말마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우연히 얻은 정보에 솔깃해져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마치 트럼프처럼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총동과 넘치는 식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야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가 만약 자신처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결코 지루한 의사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개인 병원을 하면서도 점점 본분인 의사보다는 사업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87년대부터 불황이 닥치기 시작했고 90년대 초 아야드가 대학에 2학년이었을 무렵 그는 자신의 병원을 처분해야 했다. 이후 그의 아버지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한 의대에서 교수로 새 인생을 시작했고 인생 역전을 위해 연구 경력을 쌓는데 매달렸다. 아버지는 단 3년 만에 심장의학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쌓기 시작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심장 질환 중 하나인 브루가다 증후군 연구로 여러 상까지 받았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덕분에 유능한 심장 전문의로 거듭났고 트럼프는 당시 거둬들인 사업실패와 식사습관 때문에 그 어떤 의사들도 병명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심장병인 브루가다 증후군을 알게 되었다. 이 작은 우연들이 모여 두 사람은 의사와 환자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 트럼프는 아야드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신이 그에게 머물도록 한 프라자 호텔 스위트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야드의 아버지는 엄격한 태도로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해있는지 자신이 이곳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미루어야 했는지 설명했고 트럼프는 바로 그의 말을 멈추고 이름도 발음 하기 어려운 그 파키스탄 출신 의사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2016년 선거 초반,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스타일과 그의 성격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공통적으로 그가 결코 사과라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야드의 아버지는 트럼프가 얼마나 자신에게 공손한 태도로 임했는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덕분에 그 후로도 오랫동안 트럼프의 주치의로 일했고 트럼프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뉴욕으로 출장을 가는 동안 무려 15년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며 점점 트럼프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야드의 아버지는 9·11 이후에도, 트럼프가 선거 전에서 아무리 반 무슬림적인 발언을 하거나 반이민자적 정책을 주장해도 자신들은 다른 종류의 무슬림들이며 자신은 트럼프를 믿는다며 그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아야드는 변화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 세대와 자신의 현실 속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서사 방식으로 탄생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소설이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한 편의 에세이 같은 작품이다.

<저자 소개>

아야트 아크타 (Ayad Akhtar)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이다. 그의 데뷔작인 『AMERICAN DERVISH』는 전 세계 20 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그의 연극은 전 세계 및 해외에서 제작되어 플리처 상, 케네디 상, 네스 트로이 상, 여러 오비 상을 수상했으며 토니 상은 두 번이나 수상한 바 있다.

제목 : THE WOMAN DOWNSTAIRS
가제 : 아래층의 비밀
저자 : Elisabeth Carpenter
출판사: Orion Publishing Co
발행일: 2020년 1월 2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반전과 반전이 거듭 되는 스릴러, 작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짓과 끔찍한 진실**

어느 날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 지하 바로 위에 살고 있던 사라는 그 후 누군가가 건물 주위를 은밀히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 건물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살고 있던 로라는 그녀가 이 건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몇 년째 밀린 채납금을 받으러 온 두 남녀는 현관 문 앞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는 그 집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집에는 여기저기 먼지가 쌓여있었고 부엌에는 씻지도 않은 채 쌓아둔 식기들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 집 거실 소파 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 하얀 백골이 여기저기에 드러난 부패 중인 시체가 놓여있었다. 덜렁거리고 있는 시체의 손 아래에는 선물로 보이는 포장지에 싸인 물건들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 두 개가 놓여있었다.

그 날 아침 사라는 아들과 이곳으로 이 아파트로 이사 온지 이 년 만에 처음으로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들었다. 다른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사라 역시 아래층은 그저 비어 있는 집이라고 생각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앵벌런스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가던 이웃 노인 베넷과 마주쳤다. 베넷은 사라에게 지하 층에서 방치 되어 있던 시신 한 구가 발견 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사라에게 건네주었다. 베넷이 그 층에서 몰래 주워왔다는 그 봉투에는 '로빈 하틀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베넷은 오래 전 자신의 아내인 안젤라가 그 로빈이라는 남자와 친구 사이였지만 지금은 둘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 시신의 주인은 아무래도 로빈이라는 남자인 것 같았다.

베넷과 헤어진 후 사라는 길을 건너기 위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사라의 눈에 어두운 회색 바지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사십 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 역시 사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점점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사라는 그녀에게 자기가 아는 만큼 설명해주었고 그 여자는 이 아파트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이고 시체가 발견 된 3호에 사는 남자 또한 알고 있는 눈치였다. 사라는 그녀를 보며 자기도 모르게 왠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사라는 친구 킴을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갔다가 그 카페에서 방금 마주쳤던 그 소름 돋는 여자를 다시 마주쳤다. 하지만 그 여자는 사라를 알아보지 못했고 사라가

로빈에 대해 알고 있는 지 묻자, 단지 그 죽은 남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윽고 그 수상한 여자가 자리를 옮기자 김 역시 그 여자에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낮이 익은 얼굴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카페에서 나온 사라는 또 한번 낮선 이의 시선을 느꼈다. 그 남자는 민망할 정도로 사라를 뚫어저쳐 바라보고 있었고 사라는 혹시 자기가 아는 사람인가하고 손까지 흔들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던 길 사라는 베넷을 다시 마주쳤다. 베넷은 사라를 보자마자 대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캐서린’이라는 여자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후 집에서 창 밖만 내다보며 살고 있는 여자였는데 시체가 발견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방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그 여자의 이름조차 처음 들은 데다 베넷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한편 로라는 텔레마케터 면접을 앞두고 있던 터라 잔뜩 긴장한 상태였다. 이제 곧 서른 살이 될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나마 남아 있던 아버지가 남긴 돈도 다 떨어져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 역시 아침부터 계속 되는 소음 때문에 밖을 내다보았다가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경찰차와 앰بول런스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심각한 사건이라면 곧 알게 되겠거니 하며 면접 장소를 향해 떠났다. 면접관들은 그녀에게 왜 정규 교육 과정 대신 홈스쿨링을 받게 되었는지, 왜 여태 아무 경력도 없는지, 왜 병든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는지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들을 퍼부었고 그녀는 예상대로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근처 카페에 들렀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기 전까지 다녔던 학교 동창 통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로라에게 오늘 그녀가 참석했던 인터뷰에서 심사위원으로 자격으로 앉아있었다고 고백했다. 로라는 그의 말에 갑자기 수척심이 들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로라는 침실로 가는 길 날카롭고 딱딱한 뭔가를 밟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작은 돌 조각이었는데 창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들어 온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로라는 집에 돌아와 죽은 남자의 집에서 몰래 가져온 편지 하나를 열어보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M’이라는 여자로 로빈에게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용서해주기를 간청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상한 이들이 로라와 사라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고 사라는 자신의 과거와 남자의 죽음이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경찰들은 죽은 사람이 ‘로빈’이라는 남자가 아니라 의문의 여자라고 말하고 있었고 분명 과거의 일을 알고 있는 이웃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여자와 이 죽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느리지만 서서히 깊게 빠져들게 되는 스릴러이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카펜터 (Elisabeth Carpenter) 는 노던 라이터스 뉴 픽션 어워드 (Northern Writers' New Fiction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전작으로는 『99 Red Balloons』, 『Only a Mother』가 있다.

NON-FICTION

제목 : THE LAZY GENIUS WAY

가제 : 게으른 천재가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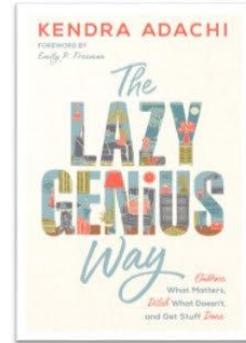
저자 : Kendra Adachi

출판사: Waterbrook Press

발행일: 2020년 8월 1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자기 계발



*** 일상 생활을 더욱 가볍고 단순하게, 게으르게 살아도 충분히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책**

꼭 꼭두새벽에 일어나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부산을 떨어야만 생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인기 팟캐스트인 'The Lazy Genius'의 진행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켄드라 아다치는 그 질문에 과감히 'No'라고 대답한다. 이 책은 굳이 바쁘게 살며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서도 현명하게 삶의 우선 순위를 지키며 효율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미 있는 삶, 일상 생활과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는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그 책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저자는 삶 자체가 투쟁이나 다름없는 피곤한 전쟁터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기지를 발휘한다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 비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일상 생활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주목한다. 그녀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일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더 적게 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본인에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치 스위스 군용 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 13가지 원칙은 세탁과 같은 단순한 집안 일부터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일까지 모든 상황에서 적용 해볼 수 있는 원칙이다. 저자는 이 원칙을 통해 누구든 자신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게으름과 천재성을 조합해 만성 피로나, 신경증에 시달리지 않고도 꽤 능률적인 일상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저자가 제시한 그 열 세 가지 원칙이다.

1. 한 번 해보았던 것을 그냥 또 해도 괜찮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거나 굳이 다른 도전을 할 필요 없이 자신 있는 일을 하면 된다.)
2.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너무 잘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3. 만약 시간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스스로 떠올려보라.

- (아침에 미리 해둔 요리가 있다는 걸 자각하고 굳이 요리 시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4.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때에 맞게 살아라. (조급함이 느껴진다면 가만히 서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
 5.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일과를 만들어라.
 6. 집에서 생활 할 때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라.
 7.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어라.
 8. 사람들을 초대하라. (스스로 요리한 음식이 맛이 있든 지 없든 지 상관하지 말고 사람들을 초대해 대접해보라. 사람들과 함께 하며 에너지와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9. 귀찮은 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라. (매일 재료 손질하는 일이 귀찮다면 일요일에 몰아서 하라.)
 10. 필요한 물건만 사라.
 11. 올바른 순서에 맞게 일을 하나씩 처리하라. (순서에 맞게 일을 하다 보면 그 평안함을 곧 자신감이 된다.)
 12. 휴식도 계획 중 일부에 넣어라.
 13. 스스로에게 친절 하라

이사부터 요리, 친구 선물 고르기까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당연하는 다양한 미션들에 대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내서이다.

<목차>

서문

머리말: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머리말

제1장. 어떻게 하면 '게으른 천재'처럼 사고할 수 있을까?

제2장. 한 번 해보았던 것을 그냥 또 해보아라

제3장. 스스로에게 마법의 질문을 던져라

제4장. 당신의 때에 맞게 살아라

제5장.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일과를 만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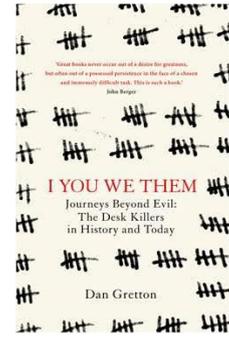
제6장. 집에서 생활 할 때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라

(이하 생략, 총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게으른 천재라고 알려진 켄드라 아다치 (Kendra Adachi)는 3천 5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기 팟캐스트 'The Lazy Genius'의 진행자이며 그녀의 인스타 그램 팔로워는 4만 5천명에 달한다. 그녀는 여성들이 다른 사소한 일들보다는 자신의 경력에 더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제목 : I, YOU, WE, THEM
가제 : 악인들의 책상에서 벌어진 일들
저자 : Dan Gretton
출판사: William Heinemann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1104 페이지
장르 :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들을 지시하고 기획했던 데스크 킬러들에 대한 이야기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나치 전범 재판에서 유대인학살의 총괄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은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저 명령을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간의 소문처럼 악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상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던 독일의 철학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이를 두고 진정한 악이란 자신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단 한번도 비판적 의심을 해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인권 운동가이자 교사인 이 책의 저자 댄 그레튼은 어떻게 그렇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극악 무도한 죄를 지르게 되는지, 지난 200여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데스크 킬러 (Desk Killer, 전체주의 국가의 관료와 같은 큰 사건의 간접적 공범, 배후 조종자)들과 같은 범죄자들이 어떤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연구한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관료제가 보장해주는 익명성 뒤에 숨어 온갖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서 거대 기업이라는 새로운 탈을 쓰고 등장한 악덕 기업들은 물론 그 집단 속 개인들의 무지와 탐욕에 대해 파헤쳐본다. 이 책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수백 명이 참가한 인터뷰 및 광범위한 탐사를 기반으로 세상에 나온 책이다. 저자는 제국주의 잔인함부터 니제르 델타의 황폐한 유전으로 시선을 옮겨, 아우슈비츠의 산업단지에서부터 보스니아 대량학살이 일어난 빈 공터들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저자가 직접 만났던 증인들과 기록들에 대해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의 천 페이지를 가득 채운 아우슈비츠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잔학 행위 및 대량학살 등에 대해 연구하면서 인간이 인간성을 잃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훨씬 쉬워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트레블링카 수용소장인 프란츠 스탕글은 자기가 내린 지시 하나로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고 그 어떤 도의적 책임도 느끼지 못했다. 특히나 나치 수용소는 분업화 된 조직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직원들은 자신들이 한 작은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올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반적인 역사서라기 보다는 저자가 데스크 킬러들의 흔적을 쫓아가며 쓴 보고서이자 여행기이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점점 책임감을 경시하고 혹은 일부러 그 책임을 떠맡기 위해 관료주의의 악습을 이용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책임감과 불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줄 책이다.

<목차>

제 1 권: 데스크 킬러들의 세계로 떠나는 여정

서문: 첫째 날, 화이트 페이지

제 1 부: 과거의 지도 그려보기

제 1 장. 탐험 :지도와 호기심 많은 어린이의 마음

제 2 장. 지타 세레니. 알버트 슈피어

제 3 장.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법: 리버풀 스트리트 역에서

제 2 부 : 시간을 거닐다

제 4 장. J 의 여정

제 5 장. 잊혀진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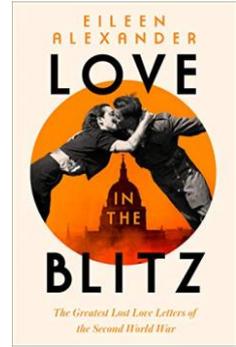
제 6 장. 사우어 : 코다를 향해 '역사의 사각지대'

(제 1 권: 총 5 부 16 장, 제 2 권: 총 8 부, 21 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댄 그레턴 (Dan Gretton)은 작가이자 운동가 및 교사이다. 1983 년 그는 케임브리지에서 정치 예술 조직인 '플랫폼'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공동 창립자 중 한명이다. 그는 플랫폼에서 일하면서 기업 환경과 직원들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고 '데스크 킬러'를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강의한 바 있다.

제목 : LOVE IN THE BLITZ
가제 : 블리츠와 러브레터
저자 : Eileen Alexander
출판사: William Collins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서간문



*** 한 여인의 지성과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한 편의 문학작품 같은 편지글 모음**

‘더 블리츠 (The Blitz)’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1940년에서 1941년에 걸쳐 독일 공군이 영국에 가한 일련의 폭격 및 공습을 영국 측에서 일컫는 말이다. 당시 신문에서는 런던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언론에서 발표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애써 태연한 척을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아돌프 히틀러가 런던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9년 여름,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전쟁이 시작되었고 당시 이 책의 저자인 에일린 알렉산더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젊은 캠브리지 졸업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 이집트에서 돌아올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캠브리지를 떠나 런던으로 차를 몰고 달리던 중 실수로 게르손 엘렌보겐이라는 남자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두 사람 다 한번도 예상한 적 없었던 이 교통사고는 훗날 에일린과 게르손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일생 일대의 사건이 되었다. 게르손은 리버풀에서 태어나 독실한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라 고전과 심리학을 전공한 청년이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 되었을 때 에일린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얼굴 전체에 부상을 입고 쇄골까지 부러진 상태였고 바로 그 병원에서 처음으로 게르손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단순히 용서를 구하기 위해 썼던 편지는 오랜 전쟁 기간 내에도 끊이지 않았고 두 남자는 서로의 마음 속에서 홍수처럼 걸잡을 수 없이 흘러 넘치는 애정의 말들을 고스란히 담은 사랑의 편지로 변해갔다. 게르손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들 중 일부가 파기되거나 분실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는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공습대피소와 사무실, 호텔 로비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보낸 수천 통의 편지들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에일린은 그를 향한 사랑을 점점 키워나가며 편지를 통해 그녀가 가진 재능과 헌신적인 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편지에 엘리자베스 시대 문학을 인용하기도 하고 직업을 찾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던 순간들과 전쟁 중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써내려 갔다. 그녀의 눈을 통해 바라본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은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화들도 가득하다.

이 책은 그녀가 전쟁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신의 일생의 사랑인 게르손을 기다리다 다시 그와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다. 단순히 한 여성의 지고 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담긴 편지 글 모음집이 아닌 솔직하고 당당한 한 여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이다.

그녀의 편지는 당시 상황을 묘사할때 돋보이는 생동감과 지성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편지에서 전쟁 중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겪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성관계와 직업적 야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으며 삶과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당당히 말하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학적 발견이 될 만한 책이다.

<목차>

서문

역사적 배경 소개

제1장. 드럼나드로이트, 여름. 1939년 9월—1940년 4월

제2장. 가만히 앉아 생각에 빠질 시간이 없다. 5월—9월

제3장. 내 젊은 친구에게 9월—12월

제4장. 블리츠 (영국대공습) 1941년 1월—3월

제5장. 의도들 3월—9월

제6장. 공무원 시절 9월—12월

제7장. 당신이 뜻했던 바 1942년 1월—5월

제8장. 이별 5월—12월

(이하 생략, 총 1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에일린 알렉산더 (Eileen Alexander)는 카이로에서 태어나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가족과 함께 영국 캠브리지로 이사 왔다. 캠브리지에서 영문학 학위를 수료한 그녀는 2차 세계 대전 중 공무원으로 일했다. 에일린은 그 후 교사, 번역가,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바 있다.

제목 : THE FORCE OF NON-VIOLENCE

가제 : 비폭력의 힘

저자 : Judith Butler

출판사: Verso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사회, 철학



***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폭력의 윤리가 더 넓은 정치적 영역까지 확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

주디스 버틀러의 신작인 이 책은 비폭력의 윤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평등을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과 연결 되어야 할지 보여주는 이론서이다. 이 책에서 버틀러는 비폭력이 우리 영혼의 평온한 부분에서 우러나오는 수동적인 관행 혹은 기존의 권력 형태와 개인적인 윤리 사이의 관계 정도로만 잘못 인식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비폭력이란 그런 감정적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 분야에서 적용되는 윤리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지금 이 세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는 수많은 일 속에 숨어 있는 공격성과 적대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인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공격성이 폭력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폭력 자체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내리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버틀러는 현대가 마주한 비폭력 정치에 대한 한 가지 도전으로 바로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선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물리적 상처를 입히는 행동만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명백한 위협이 나타나지 않는 언어 폭력도 폭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경제적, 법적 구조 그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폭력성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신체에 폭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형태를 취한 폭력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인 두 사람 간의 충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순한 폭력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폭력성이 암묵적으로 숨어있다. 조직적인 인종주의나 특정 계급의 사람들을 도외시하는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 또한 역시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버틀러는 바로 폭력에 대해 모호한 의미를 자꾸만 씌우려고 있는 시도가 어떤 국가 혹은 조직이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폭력에 대한 의미를 두고 독단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결과를 불러왔고 따라서 정치적 철학 내에서 비폭력을 윤리적 문제로 간주하려면 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푸코, 파논, 프로이트, 벤자민의 이론을 바탕으로 폭력이 왜 우리 삶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버틀러는 ‘인종 구분에 대한 망상 (racial phantasms)’과 같은 실체가 없는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이 어떻게 미국 정부와 행정적 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지 특히 그러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 된 사람들에게 그 폭력성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적해본다. 구조적 또는 체계적인 폭력의 작동방식과 더 포괄적인 폭력의 틀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이다.

<목차>

서문

제1장. 비폭력, 애통할만 한, 개인주의 비판

제2장.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제3장. 비폭력의 윤리와 정치

제4장. 프로이트의 정치 철학: 전쟁, 파괴, 마니아, 비판력

후기: 취약점, 폭력, 저항에 대한 재고

<저자 소개>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수사학 · 비교문학과 교수이며, 철학자이자 젠더이론가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Gender Trouble』, 『Precarious Life』, 『Frames of War』 등이 있다.

제목 : YOUR BRAIN AND YOU

가제 : 뇌와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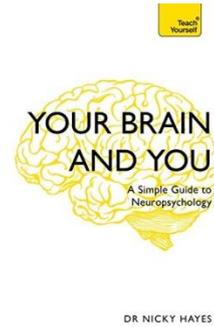
저자 : Nicky Hayes

출판사: Teach Yourself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과학



*** 뇌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다. 뇌가 가진 무궁무진한 능력과 개별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담은 책**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저마다의 여러 답들을 늘어놓을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살아가며 정보를 저장하고 웃고, 상상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을 하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인간의 나약한 육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독특한 뿔이나 강인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리는 능력이나 신체적인 월등한 힘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감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종들에 비해 열등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 사실이 현실과 반드시 들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 닉 헤이스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약점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인류의 뇌가 더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인간은 우리가 자신의 육체와 물리적 세계, 사회적 세계, 상상의 세계와 원활히 상호 작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간을 다른 종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의 뇌라는 것이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과 뇌의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우리는 뇌에 대해 더 많은 숨겨진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다. 뇌의 각 부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외에도 뇌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서로 하나의 부품처럼 연결 되어 작동하고 있는지 밝혀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 행동, 말, 감정 이 모든 것들은 다 뇌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저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신경 신호 물질들이 반응하면서 일으키는 단순한 총동 집단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다. 인간의 뇌는 분명 우리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신경 세포와 뇌 구조가 어떻게 인간이 특정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는 것이다. 현대 뇌 과학 연구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신경 다양성 (neurodivers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뇌는 다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뇌 과학계에서는 소위 '정상적'이라고 부르는 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뇌의 각 부분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단순한 설명은 사실 뇌가 가진 무궁무진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엔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 뇌는 끊임 없이 변화 하는 기관이며 확립된 경로에 방해 작용이 일어나거나 다른 세포를 활용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뇌와 전혀 다른 특별한 뇌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서로 똑같은 뇌를 가진 사람은 없다. 인간의 기억, 관계, 감정, 의사 결정, 수면, 의식 그리고 난독증과 같은 장애와 관련된 뇌의 작용과 놀라운 힘을 가진 뇌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과학서이다.

<목차>

제1장. 뇌는 무엇일까?

- 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 시상과 변연계대뇌
- 대뇌

제2장. 뇌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 뇌 세포
- 화학 및 전기
- 학습과 신경 가소성
- 뇌의 측면화
- 뇌 연구

제3장.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 걸까?

- 시야와 실명
-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방법

(이하 생략, 총 13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니키 헤이즈 (Nicky Hayes) 박사는 영국 심리학회와 공인 심리학자 및 심리학 교육 협회의 명예 회원이며 대학 및 비즈니스, 공공부문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하다.

제목 : IT'S NOT MY HEAD IT'S MY HORMONES

가제 : 호르몬 때문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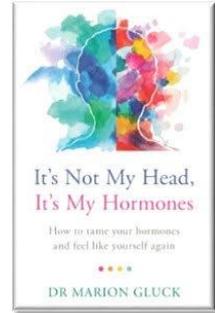
저자 : Dr. Marion Gluck

출판사: Orion Spring

발행일: 2019년 11월 2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건강



***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다양한 호르몬들에 대해 알려주는 책**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데 사실은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고민 끝에 정신과 진단을 받아봤지만 항우울제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것이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작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호르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건강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은 여성의 삶에 리듬을 더하고 사춘기를 거쳐 생성된 에스트로겐은 우리의 기분, 신체, 임신, 출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하지만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있던 활력은 점차 기력을 잃고 폐경기에 접어들면 점점 컵가에서 멀어져 가는 음악 소리처럼 그 힘은 사라지고 만다.

여성의 폐경기는 호르몬 변화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의 시기'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마리온 글룩 박사는 여성은 폐경기 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사춘기, 임신기, 폐경기 전기간까지 거의 평생동안 호르몬의 격변과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한다. 글룩 박사는 이 책을 통해 호르몬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이 변화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들은 흔히 자신을 더 이상 성적 매력에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수치심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적 매력을 어필하거나 성적 욕망을 갖는 일이 부질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여성들을 위한 책이다. 글룩 박사는 폐경기야말로 우리가 호르몬의 영향과 신체와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딱 좋은 시기이며 이 학습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특히나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울증 진단과 항우울제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네 명중 한 사람이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글룩 박사는 이 새로운 현상 역시 호르몬 건강, 생활 방식, 스트레스 요인과 얽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글룩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뇌 화학과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 낱알이 밝혀보고 어떻게 과학과 정치, 기업들의 상업적 욕심이 우리가 스스로 호르몬을

관리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본다. 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에 대한 이해와 스스로 호르몬을 관리하는 법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이다.

<목차>

서문

제1장;호르몬 퍼즐

제 2 장; 호르몬을 둘러싼 신화 파헤치기

제3 장;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호르몬 리듬

제 4 장: 음식과 다이어트가 기분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5 장: 유연한 호르몬

제6 장: PMS와 폐경기를 넘어서서

제7 장: 여자와 광기 : 오늘 날에도 계속 되고 있는 잔인한 시작

제 8 장: 우리를 둘러싼 독성 환경

제 9 장: 자신을 돕는 방법

<저자 소개>

마리온 글록 (Marion Gluck) 박사는 함부르크에서 수련의로 근무한바 있으며 그 후 호르몬 불균형을 연구하는 최고 권위자로서 전 세계에서 여성 건강 전문가로 활동했다.